

언약을 전달하는 맥추절 감사

신명기 16:9-12, 사도행전 2:1

최정웅 목사님

유자연 사모님이 카렌 갔다오더니, '살아왔습니다' 하더라. 힘들었던 모양이다. 그런 걸음 속에서 세계복음화가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스턴과 시카고를 잘 다녀왔다. 전화로 최봉식 장로와 가정에 문안을 했다.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한다. 시카고에서 예준이도 공부를 잘 하고 있다. 오늘은 언약을 전달하는 맥추절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해를 보내고 있다. 특별히 창립 50주년 회년의 해를 보내고 있다. 그 중에서 맥추감사절을 맞이한 것이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반 년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한다.

서론 : 절기를 지키는 이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을 보면, 절기를 지키면서 후대들에게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에스터 때부터 생긴 절기가 또 있는데, 그게 부림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당해 갔을 때, 하만이라는 교만한 총리가 나왔다.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자기 눈에 거슬려서, 어느 족속이나 물어봤더니 유대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모르드개 뿐 아니라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왕에게 돈을 많이 갖다주고 이유를 대서 허락을 받은 것이다. 모일 모시에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도 된다는 허가가 났다. 그때 왕후였던 에스터가 삼촌 모르드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자가 한 달이 넘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도였다. 그런데 모르드개가 말한다. "네가 왕궁에 있으니 혼자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너의 집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에스터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이다. 그랬더니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죽게 되고, 유대인들은 살게 되었다. 멸종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부림절이다.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명절을 정해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 이 명절을 지킬 때는, 자녀들과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는다. 이스트가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지킨다. 때로는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준다. 미국 유대인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장막을 치고, 1주일 동안에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지낸다.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를 보면, 그때는 베란다마다 텐트를 쳐 놓았다. 몸이 아픈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지내면서 왔다갔다 한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자기 민족의 정신과 이념과 철학을 전달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붙잡은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 속에 있는 복음을 후대에게 언약으로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대신에, 유월절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한다. 수장절을 지키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후대와 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오순절을 지키는 대신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후대와 함께 체험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두고 감사하는 내용이며 의미이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

1. 맥추절에 감사해야 할 이유

맥추절을 두고 목상해야 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맥추절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7은 완전수다. 3은 하나님, 4는 세상이어서, 합쳐서 7은 완전수다. 7 곱하기 7 해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라는 말도 다섯 번째 열흘이니까 50일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 50일인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 50일이 되었다는 말이다. 원래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문화 속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게 되어 있었다. 그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시고 자기 자녀를 삼으신 것이다. 원래 죽음의 사자가 다닐 때 자기들도 죽어야 하는데, 자기 대신 죽은 양의 피를 바른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맥추절, 오순절에 감사해야 할 이유다. 사실은 매일, 매시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슨 말인가? 사단의 종 되었다가 멸망해서 지옥가야 할 우리

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이나 수고나 위대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복음의 근본을 목상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한다.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이 있지 않다.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일제 36년을 겪었다. 한 세대 동안 속국 생활을 했는데, 그 폐해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 우리 생활 속에 전달되었던 문화도 많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400년을 보냈다. 정확하게는 430년이다. 13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말이다. 우리가 만약 400년을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았다면 우리 문화, 우리 정신이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아찔한 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힘이 없는데, 지팡이 하나를 들고 탈출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던 찬송 작가들처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야 되겠다.

(2) 두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고 있나? 광야길을 가고 있다. 광야에 가 보면 알개 되겠지만, 거기에는 물이 없다. 너무 힘든 곳이다. 보통 100미터, 200미터를 파야 물이 나온다. 비도 안 온다. 거기에서 살아남는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다. 가는 곳마다 바위, 돌이 가득하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갑자기 춥다. 대만에서는 영상 7도인데 누가 얼어죽었다고 한다. 낮에 40도였던 곳이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한서의 차가 무서운 것이다. 광야에서는 25도 정도 밤낮 차이가 나니까 견디기가 힘들다. 중동 사람들이 광야에서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다 둘러쓰고 다니지 않나?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번에 시카고에 갔더니, 시카고는 5대호 유역이다. 견디기 쉽지 않더라. 오는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금 적음이 되었다. 사모님이 살아왔다 그러는데, 나도 실감하고 왔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중에 이 사람들이 50일 쟁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험한 길, 어려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것이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이 뜨거워서 견디기 힘들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밤에는 20도 이상 떨어져서 갑자기 추워지는데, 그때는 불기둥을 세워 주신 것이다. 한번 필리핀 바기오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새벽 2시에 숙소에 도착했다. 필리핀은 더운 동네니까 여름 옷만 가지고 갔는데, 방에도 무명 홀이불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밤에 10도 정도 갑자기 내려가는데, 땀속까지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다 퇴근해서 받는 사람이 없더라.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떨어지기도 했다. 3대독자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 시체조차 찾지 못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광야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감사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일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먹을 것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시내산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50일 동안 광야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사건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신 줄 믿는다.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잊지 마라.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을 때에는, '주여,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외쳐 보라. '천사야, 너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엇을 하느냐!' 외쳐 보라.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다. 그 은총을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

(3) 세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맥추절이다. 첫 수확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다. 드디어 가나안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어서, 처음 수확을 하게 되었다. 맥추라는 말이 보리를 추수했다는 말 아닌가? 열매를 드디어 얻었다는 것이다. 가을이 되어서 농사한 것을 다 거두어들이고 창고에 저장해 두는 그 날이 되기까지, 중간에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다. 반 년 동안의 감사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거를 얻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세 번째 감사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를 두고 다시 한 번 목상해 보시기 바란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다. 허물과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다. 특히 창립 50주년, 회년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 우리교회에 일어난 오순절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한다. 급근 한 해만 봐도, 하

나눔이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깊이 감사하자.

2. 맥추절에 감사해야 할 방법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해야 할 방법이 본문에 드러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16:10-11에서, 하나님은 네 가지 감사를 말씀해 주셨다.

(1) 내 힘을 헤아려 지원하는 예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 힘을 헤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부분을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하는 예물이야 한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두고 인색함이나 아까워함으로, 격정하면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예를 드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감사다. 역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받으시지 않는다. 의미를 알고 드리는 헌금은 미래를 살리는 투자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교회 사모님이 나를 부르셔서, 두 돈 줘 되는 반지를 줘 팔아달라는 것이다. 아마 먹을 게 떨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사모님이 결혼반지를 팔아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심부름을 가서, 흠이 난 것을 다 제거하니까 반짝반짝하는 금반지가 되었다.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 드렸다. 그때 마음이 몹시 아팠다. 나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 교회는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 헌금을 통해 한 해 예산의 2/3를 채우게 된다. 그런데 우리교회는 가난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없었다. 고3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할 때였다. '내가 내년에는 최고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작정을 한 것이다. 57, 58년 전이다. 그때 1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매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800원 씩 넣었다. 빵이 얼마나 먹고 싶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참고 1년을 모았다. 그래서 다음 해 추수감사절 때 1만 1천 얼마를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데, 눈물이 절절 흐르더라.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복이 감사해서 드린 것이다. 아마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 같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종이 되라.' 그렇게 하신 것 같다. 그리고 또 울었던 것이 안수를 받을 때였다. 동노회에서 영락교회에 있었던 임영신 목사, 과천교회를 담임했던 김찬중 목사라 또 한 분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받기 전에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다.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울었던 것은 아니다. 안수를 받는데 웬지 모르게 눈물이 펄펄 쏟아지더라. 진짜 폭포수 처럼 눈물이 쏟아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원하는 진정한 감사 속에는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때 내 인생을 책임지셨다고 나는 믿는다.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러했다.

(2)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하는 것이다. 절기는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원니스(Oneness)가 되어서 같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절기라는 시간표를 주셔서, 전체가 하나되어 감사하도록 하신 것이다. 태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아유치,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참된 감사를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미리 감사할 것을 다 준비했다. 예전에 보너스가 있을 때에는, 한 달 치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다. 이번에 정성껏 드릴 것을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했다.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3) 세 번째로, 택하신 곳에서 감사하라고 했다.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교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를 중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하는 감사, 교회를 세우는 감사가 되라는 말씀이다.

(4)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다. 예배 속에서 하는 감사라는 말이다. 그래서 시편 50:14와 50:23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했다. 이 일을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고 했다. 시편 100:1-5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응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다. 50년이 지났어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체험이 있고, 어떤 간증이 있는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차례가 아닌가?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갈 때에는 항상 딸에게 줄 초콜릿 같은 것을 사서 가방에 집어넣어서 갔었다. 그것을 딸이 너무 기뻐하니까, 딸을 위해서 늘 가방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들어갔다. 혹시라도 가방을 열었는데 아무 것도 없으면 실망하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 갔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그 딸이 결혼을 해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을 아빠가 방문을 하게 된 것이다. 아빠는 늘 그랬던 것처럼 가방에 선물을 가득 챙겨서, 딸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딸의 집에 갔다. 그런데 그 딸

이 가방부터 열어볼 줄 알았더니, '아빠,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가방을 한 쪽으로 치워두고는 요리를 정성껏 해서 한 상을 차려 드린 것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가방을 열어볼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아빠가 아쉬워서 말했다. "얘야, 너는 왜 이제는 가방을 열어보지 않느냐?" 딸이 눈물을 주룩 흘리면서 대답했다는 것이다. "아빠, 이제는 제 차례예요. 제가 전에는 철이 없어서, 선물이 없으면 앙탈을 부리고 때를 썼지요. 제가 출가해서 어른이 되었으니, 이제는 제가 아빠를 공경하고 모셔야지요." 여러분, 시간표가 다르다. 이 감사절 때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감사할 이유를 생각하며, 너무나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평생을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계속 불평하고 불만 가지는 자녀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 참사랑교회는 50년이 된 교회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세계복음화 사역에 앞장서야 할 나이가 되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지금 50주년을 보내고 있다.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감사로 충만하여 증거가 충만하게 회복되는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한다.

결론 : 지속해야 할 감사

결론을 말씀드린다. 한 주간 지속해야 할 감사라는 부분을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란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결국 지속하라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굳이 절기로 주신 것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지속하라는 것이다.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후대에게 감사의 언약을 전달하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

(1) 그래서 먼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 불신자 상태.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를 받는지, 복음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 포럼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2) 이런 복음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규례를 만드는 것이다.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의 규례를 꼭 가지시기 바란다.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나의 방법을 찾도록 후대와 함께 목상해 보셔야 되겠다. 어느 미국 교회를 탐방해 보았는데, 그들은 1년 중에 예산을 세울 때가 되면, 예산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내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온 교회가 축제를 벌인다고 한다. 파티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 집이 우리 교회에서 보면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상류층이다 중산층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난한 서민 계층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우리는 이 정도 사니까 우리교회 내년 예산 중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는 그것을 드린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아예 한 해 예산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이 교회는 선교사님을 돕는데, 선교사님 생활비를 드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집도 지어주고 선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드린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계획을 해 보셔야 한다. 신년에는 어떻게 하고, 부활절에는 어떻게 하고, 맥추절에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에는 어떻게, 성탄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 보아야 한다. 나의 방법을 찾도록, 후대와 함께, 램프들과 함께 연구해 보시기 바란다.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못 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뜻을 이루신 적이 없다.

(3)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19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다. 가르치고 지키고, 이것을 삶 속에서 행하도록 알려주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방향이고 응답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참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가족들과, 후대들과 함께 깊은 포럼을 하다가, 감사의 제목과 규례를 찾아, 감사를 지속하며 응답받는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반 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반 년 동안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루신 것도 많고 놀랍지만,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을 믿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원의 감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있고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참사랑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